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한 사도적 비전

2009년 3월 16일 아제르 인터레이터

저희의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길 바라는데) 비전은 예수아께서 주신 대위임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므로, 너희는 권능을 받고, 여러 사탄들과 온 무대왕 사마리아에게, 그리고 마귀에게 대항 끝까지, 너희 증인이 될 것이다" - 행 1:8.

성령님의 사역과 세계 복음 전도 가운데에는 분명한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각각에서 나에게 기쁨을 복으시니, 각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각각에서 나를 보내시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 사 61:1.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싶어하면서 개인 전도에는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체험 없이 마치 사업처럼 전도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둘 다 옳지 않습니다. 함께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위임- 성령과 전도-은 세 번째 위임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위임입니다. 행 1:8 은 행 1:6 의 질문(각각, 각각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게를 위하여 각기 때가 내로 지금 임하니까?)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초대 유대인 제자들은 때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때 (1세기)가 아니라 지금 (21세기)인 것입니다. 예수아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마 2:6, 눅 1:32, 요 18:37).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하시려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국을 회복하시는 일은 성령의 부흥과 세계 복음화 없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아의 왕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의 끝까지 이릅니다. 성령 세례, 세계 복음화, 그리고 왕국의 회복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기도 운동, 선교 운동, 그리고 메시아니즘 운동은 삼겹줄을 형성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없이 누구도 마지막 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아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듯, 다시 하늘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입니다. 너희를 다니에서 하늘로 올리시니 이 예수는, 하늘로 올리시니 것을 너희가 볼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 행 1:11, 그분의 발이 다시 올리브 산에 닿을 것입니다. 삭 14:4 □ "그 날이 오면, 각각에서 여러 사탄 맞은편 등쪽, 올리브 산 위에 하늘을 디리곤 세실 것이다."

예수아는 교회의 머리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왕국은 이스라엘과 교회 둘 다의 회복과 연결돼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교회 없이 이스라엘의 회복만 바라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없이 교회의 회복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을 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에게 세계 선교(행 1:8)와 세계적 부흥(행 2:17)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부흥과 선교는 헌신되어 예배하는 성도들로 이뤄진 국제적

공동체를 낳습니다(계 7:4-9). 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공동체를 “신부”라 부릅니다. 신부가 예슈아의 재림을 위해 준비를 마치면, 예슈아께서 오실 것입니다.

계 19:17 □ *어린 양의 출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계시록 7장의 성도의 공동체는 두 가지 무리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4 절)이요 또 하나는 국제 공동체 (9 절)입니다.

계 17:4 □ *내가 들은 바로는 단장을 받은 사람의 수가 십사만 사천 명이었습니 다,*

계 17:9 □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 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나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투구마기를 입고, 갈래나무 가지 를 손에 들고, 한 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 다,*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과 교회의 이중 회복”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과 세계 교회의 남은 자들이 한 영체(靈體)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둘을 두 가지의 동일한 무리로 표현합니다. 메시아의 몸은 하나로 연결된 두 가지 진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의 신부처럼 말입니다.

에제키엘이 그대들은 두 족로 는데서 무리들을 보듯 속함이 아가씨를 바라보는지 하오? □
아 6:13

이 두 부분, 곧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새 사람 (엡 2:25)**이 됨으로써 연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동일한 **올리브 나무 (롬 11:17)**에 접붙여집니다.

로마서 11 장은 두 가지 회복에 대해 이야기할 뿐 아니라, 두 가지 충만함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것 (12 절)이요 또 하나는 이방인의 충만함 (25 절)입니다.

롬 11:12 □ *이스라엘의 전부가 바로 선행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영광 나겠습니 까?*
롬 11: 25 □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차 족 때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은 두 단계로 임하는데, 첫 번째는 육적인 것이요 그 다음이 영적인 단계입니다 (고전 15:46). 이스라엘의 현 상태는 부분적 회복에 불과하지 충만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은 이스라엘 내 메시아닉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계속해서 자라 14 만 4 천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충만 (롬 11:26)**에 이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곧 일어날 민족적 부흥입니다. 그러나 그 부흥은 세계 교회의 중보와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충만이 이스라엘의 충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차 족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복가 온고 할지니 대로 있으리 하는 것과 이렇게 하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 하는 것입니 다,*

교회의 총만이 이스라엘의 총만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총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욥 11:15** □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삶을 직심이 아닌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은 예수아의 재림 시, 그분의 천년 왕국 통치가 시작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아의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한 비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성령 세례
2. 세계 복음화
3. 세계 교회의 총만
4. 이스라엘의 회복
5. 예수아의 천년 왕국

기도 제목: 놀라운 것은, 총리 당선자 벤자민 네타냐후가 토요일 밤 늦게 카디마 당 대표 짜피 리브니와 만나 연정 구성을 위한 최후의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연정과 각료 임명에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길 기도합니다.

충격적 영상: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 친구 하나가 이 영상을 보내 왔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보여주는 8분 짜리 경각적 영상입니다.
http://www.tangle.com/view_video.php?viewkey=0861ff3eabea1ceb73e4